

尹-카타르 국왕, 관계격상 합의...5조원 LNG선 계약

정상회담서 '포괄적전략동반자'로 스마트팜 등 5건 MOU 체결 "글로벌 현안 협력 지속 강화"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타미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아미라 디안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이날 체결된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해당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도 체결됐다.

총 39억 달러(한화 5조2000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6개월 분량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계약 체결로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우리 기업 점유율도 기존 74%에서 81%로 증가하게 된다.

양 정상은 LNG 분야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운영·유지·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프라·투자·농업·해운·문화·인적교류·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또 중동 지역 경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역내와 국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카타르가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역내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카타르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타미 국왕은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MOU 서명식이 열렸다. 양측 정상은 자리한 가운데 ▲스마트팜 협력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국가 공간정보 협력 ▲중소벤처 협력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았다.

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 개국이 참가했다.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

이날 개관식이 열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원예박람회장에 도착하자 현지 교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가볍게 인사한 후 한국관 정원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서 카타르 에미르(군주)인 타미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선물한 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줬다.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 에미리트(UAE)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라고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스마트팜 시스템을 직접 작동하고, 현지에서 국내 공장 조명을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청년 기업인이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작물 관할 로봇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음 시터가 만들어지면 큰 불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다음주 혁신위 출범 첫 일정은 5·18묘지 참배"

"대통령과 거침없이 얘기할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것을 연상시키는 일정이다.

김 당시 비대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

초가량 무릎 꿇은 채 목념했다. 보수계열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인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꼽은 만큼 광주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제가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 한 일도 있고, 누구 가족처럼 복잡한 일도 있

고,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며 "제가 좀 망가져도, 희생해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풀까지 들어다보지에 대해 "집 같은 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 내용이 '영남 몰갈이론'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에서 나왔다.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농담도 못 합니까"라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인 위원장은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尹,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반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반 결정 등에 대해서

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지난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신당 준비 안하지만 가능성 배제 안해"

"유승민과 논의는 하고 있진 않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5일 "신당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간다"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신당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석이 어렵다. 그런 거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당 형태에 대해서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본인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할 거면 정의당처럼 이념 정당을 할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신인규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탈당한 후 당을 차리려고 할 것"이라며 "나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지만, 항상 선택은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